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기견(犬)·묘(猫)에 대한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하 이 안

유기견(犬)·묘(猫)에 대한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하 이 안

인 준 서

하이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논문개요

반려동물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시대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버려진 반려동물들은 보호소에 의해 구조가 된다 하더라도 생명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한다. 유기동물 보호소 또한 지원이 한정적이고 그 모든 생명을 책임지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유기 동물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려동물들이 버려져 거리로 내몰리거나 동물 보호소를 통해 포획되고 안락사를 당하게 되는 현실에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공생의 틀에서 살펴보고 유기견(犬)·묘(猫)를 통해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본인은 전시를 통해 차갑고 정적인 연출을 보여줌으로써 정애와 연민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유기견(犬)·묘(猫) 형상의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의 실태와 외면해왔던 현실을 직시하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외된 생명들을 잠시나마 마주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9년 석사학위 청구전시에서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경과 표현방법 등을 서술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배경과 그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사회현상을 통해 바라본 반려동물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유기견(犬)·묘(猫)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태를 보여주고자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통해 작품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서술하였고 개와 고양이 형상

들의 색채 표현 방식과 사실적 눈 묘사에 중점을 둔 표현방식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의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발전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 형성 배경	3
1)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	3
2) 인식변화	7
2. 작품의 표현 방법	11
1) 색채 표현	11
2) 눈의 시각적 표현	14
3. 작품 분석	17
III. 결론	48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기다림 / 40×55×87,120×60×67 (Cm)/ polyester / 2019 17
- 【작품 2】 그 곳에 서서 / 120×60×100 (Cm) / polyester / 2019 20
- 【작품 3】 마지막 기회_백구 / 35×23×42 (Cm) / polyester / 2019 23
- 【작품 4】 마지막 기회_또또 / 45×30×32 (Cm) / polyester / 2019 24
- 【작품 5】 마지막 기회_블리 / 14×20×29 (Cm) / polyester / 2019 25
- 【작품 6】 외눈의 세상 / 20×25×37 (Cm) / polyester / 2019 28
- 【작품 7】 어서 와요! / 50×13×60 (Cm) / polyester / 2019 31
- 【작품 8】 경계(境界) / 50×18×40 (Cm) / polyester / 2019 34
- 【작품 9】 나 좀 데려가라 / 55×30×14 (Cm) / polyester / 2019 37
- 【작품10】 저 아래의 세상은 / 50×25×32 (Cm) / polyester / 2019 40
- 【작품11】 바라보다 I / 162.2×81.1 (Cm) / canvas on painting / 2019 .. 43
- 【작품12】 바라보다 II / 162.2×81.1 (Cm) / canvas on painting / 2019 .. 44

【작품13】 세상의 한 편에서 / 20×20 (Cm) / paper on pencil / 2019 46

도판 목차

- 【도판 1】** 외눈의 세상 / 20×25×37 (Cm) / polyester / 2019 15
- 【도판 2】** 기다림 / 120×60×67 (Cm)/ polyester / 2019 15
- 【도판 3】** 나 좀 데려가라 / 55×30×14 (Cm) / polyester / 2019 15
- 【도판 4】** 기다림 / 40×55×87 (Cm)/ polyester / 2019 15

I. 서론

본인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여러 동물들과 함께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 영향으로 동물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성장했다. 성인이 되어 거리의 어둠 속에서 마주친 고양이의 빛나는 눈과 인간을 피해 떠도는 개의 모습을 통해 사회 속에서 느끼는 본인의 감정들과 길에 버려진 동물을 투영하여 보기 시작했으며 동물형상을 표현하는 행위를 통해 인간 사회 속에서 받은 상처들을 위로 받았다.

버려진 반려동물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유롭게 작업실을 드나들던 길고양이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 작업실에서 함께 지내던 길고양이와 각자 다른 위치에서 관계를 유지했는데 본인은 반려자와 비반려자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으며 고양이는 반려묘와 길고양이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다. 각 경계적 위치에서의 교감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본인의 무책임함과 방관 사이에서 갑작스런 죽음 맞이한 길고양이를 통해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개인적 경험을 통한 생각들은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회현상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돌아보고 유기견(犬)·묘(猫)를 표현한 작품을 통해 소통하려 하였다.

개와 고양이는 인간과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왔다. 과거 농경생활이 시작할 무렵에는 가축으로써 자리하였으며 현대 시대에 들어서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거쳐 반려동물¹⁾로 인간과 함께였다. 과거의 개와 고양이는 외부에서의 위

1) 과거에는 ‘애완동물(愛玩動物)’이라 하였으나,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동물 행동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주최한 가운데 개·고양이·새 등의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반려동물로 부르자는 제안이 나왔고 승마용 말도 여기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

협으로부터 인간의 집을 지켜주고 유해동물을 처치해주었으며 인간은 개와 고양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그들과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돌입하면서 그 관계는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근래에 들어서 인간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늘어나 그들의 쓰임새에 그치지 않고 예쁜 외모에 대한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로 사용되며 반려동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반려동물 사업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매스컴에서 특별한 사연과 특이한 외모를 가진 반려동물이 등장하거나 유명 연예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 초점을 둔 TV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인기를 끌었다. 이는 특정 종이 유행하는 현상을 불러일으켜 반려동물 번식사업을 더욱 부추기고 개량되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정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의아하게도 유기되는 동물의 수 또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반려동물들은 인간과 함께 공존해왔던 사회 속에 버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생명들을 마주하려 한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하여 반려동물에서 유기동물로 전락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유기동물이 처한 상황을 작품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였으며 각 작품의 제작 의도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져있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 배경

1)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

반려 동물과 인간은 오랜 역사와 함께 공존해왔다. 현재에도 인간의 생활 속에 반려동물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인간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부산의 한 등산로를 걷던 50대 여성이 유기견(犬)의 공격을 받아 40분가량 사투를 벌이다가 가까스로 위기 상황을 벗어난 사고²⁾가 있었다. 이와 같이 ‘가해자 없는 유기견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년 전 유기견에게 물린 초등생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하는 사건³⁾이 있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주인 찾기가 불가능해 지면서 수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해당 유기견은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보호 시설에 맡겨져 한 달여 만에 안락사 되었다. 올해 일어난 다른 사건으로 길고양이에게 밥을 왜 주느냐며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⁴⁾ 길고양이 밥을 몰래 치우려다 들키자 결국 폭행 사태까지 이

2) [출처] - 2015.11.23.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069215>

3) [출처] - 2018.5.30. MBC충북 NEWS

[원본링크]- <https://youtu.be/yny-UdzwSwc>

4)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SXUR7KU> 2019.3.31 서울경제

어진 것이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문제의 갈등은 오래 이어져왔다. 동물들도 도시 안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의견과 울음소리가 일으키는 소음문제와 위생문제 그리고 개체 수 증가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이 나뉜다. 이처럼 유기 동물로 인한 피해가 보도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와 공존하며 함께 지내온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반려동물과 인간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면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사회에서 많은 종류의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왔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들의 삶이 편리해지며 반려동물의 수 또한 함께 늘어났다. 인간 사회가 고도로 발전했지만 반대로 정신적인 부분들은 병들어 갔다. 현대 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동물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반려동물 유기 및 관련 문제점은 이 때 나타났다. 과거의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현재와 다른 모습이었다. 현재의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인간이 동물과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간이 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실행한 방법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인간이 사용한 방법은 야생에서 마주치는 동물 들을 몇몇 부류로 나눠 선택하고 인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가축화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가축이 된다는 것은 최소한 인간의 문화적인 환경에서 인간에 의해서 소유되고 제어할 수 있어야했는데 가축화를 진행할 수 없는 동물들의 특성⁵⁾들로 인해 개

5) 마고 드멜로(Margo DeMello, 2018),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천명선·조중현 옮김, 공존, 2018, p124, 가축화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들: 공격적인 성격(얼룩말, 코뿔소, 하마), 먹이사슬에서 상위 포식자(사자, 호랑이, 여타 육식동물), 까다로운 식성(판다, 코알라), 느린 성장 속도(코끼리), 영역을 정하고 단독으로 생활하는 동물(사슴, 영양), 은둔형으로 번식하고 구애 행위가 어려운 경우(치타), 잘 놀라는 성격(가젤)

나 말과 같은 동물은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는 기준에 적절했다. 인간은 가축들에게 먹을 것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 했으며 동물들은 그 대가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야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과거에는 인간과 가축화된 동물들이 공존하며 지내왔다.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려동물이라 정의 할 수 있는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우리가 반려동물이라 말하는 기준은 오직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뤄졌다. 가축화된 동물이 인간에 의해서 반려동물로 불리기 위해서는 특정 성격을 띠어야 했는데 인간의 주거 공간에 사는 동물이며 상호작용과 감정적 애착이 가능해야 반려동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르듯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들을 인간 사회에 편입시키는 행위임을 증명한다. 게다가 다른 이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말함으로써 그 동물에 대한 의미와 특성이 강해지고 상호작용과 감정적 애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변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일반적 동물의 특성은 부여받은 이름으로 명명되는 차이에 의해 명확히 갈린다.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부여하는 이름은 가축화된 동물과 달리 반려동물에게만 나타나는 차별적 특징이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 인간의 가까이에서 공존하며 가축화되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우리에게 반려동물이란 개와 고양이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개체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역사적 이유로는 개는 만 오천년 전부터 가축의 형태로 인간의 보조자로서 함께하였으며 고양이의 기원은 약 오천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농경생활의 시작과 함께 들꿨었던 쥐 때들로부터 식량을 지켜주고 인간의 근처에 머물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왔다. 현재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 인간사회에서도 많은 종류의 개와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대표하는 동물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과거 인간과 동물의 관계의 시작은 가축화를 통한 일방적 관계로 진행되었지만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가축화를 진행할 당시에는 동물들의 쓰임과 역할에 주목했다면 현대사회에 들어서 반려의 목적과 정서적 교감에 주목하며 애완동물이 등장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수준과 생명의 존엄성이 강조되며 인도적 자극을 통한 반려의 의미로 인정을 받으며 우리 곁에 반려동물의 모습으로 공존하고 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는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에 반려동물에 대한 높아진 의식 수준과 관심 뒤에 가려진 반려동물 유기라는 어두운 이면에 개인적 경험과 미술적 기법을 통해 비판적 시선을 담아 주목하려 한다.

2) 인식변화

과거의 동물은 가축으로써의 역할과 쓰임에 의미를 두고 인간과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사회가 변함에 따라 인간에게 있어 동물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도 변화하였다. 가축으로써 인간과 함께 지내던 동물 중 인간의 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동물들만이 인간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동물로는 개와 고양이가 있다. 개와 고양이는 인간 사회와 의식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는 애완동물의 개념에서 인간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의 의미로 가치가 변화하며 인간과 함께 지내고 있다.

과거 산업화에서부터 현대 사회로 변화하며 문명이 발전하는 가운데 산업화를 통한 발전만이 존재할 줄 알았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인간의 본질적 삶은 더욱 황폐해져만 갔다. 고도로 발전된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한 물품과 윤택한 삶을 제공하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인간중심사상, 생명 경시풍조를 낳았다. 이러한 사회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은 인간사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로만 알고 있었으나 인간과 동물의 관계로 확대되었다. 인간과 함께한 여러 종류의 반려동물 중 발전된 사회가 낳은 생명 경시 현상의 대표적인 산물로 유기견(犬)·묘(猫)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공원이나 카페 등 열려있는 공간에서 인간들과 함께 있는 반려동물들을 접할 수 있다. 그 중 개와 고양이는 대중적인 반려동물로 존재하고 있다. 방송 매체에서도 개와 고양이의 사연을 주로 다루는데 그만큼 우리와 오래도록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지내온 대표적인 동물이다. 과거 농경생활이 시작될 무렵 가축으로 존재하며 외부의 들짐승과 같은 야생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고 유해동물을 처치해주며 그 대가

로 인간에게 먹이나 천적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제공받으며 공존해왔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 산업화를 거치고 인간들의 삶이 편리해지며 개와 고양이의 역할도 바뀌게 되었는데 과거의 가축으로써의 쓰임과 역할기능에서 벗어나 정신적 교감에 집중하며 애완동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서 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생명의 존엄성이 강조되는 움직임을 통해 반려동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지나오며 현재에는 높아졌을 것이라 예상했던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의식 수준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 중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현황⁶⁾을 참고한다면 높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현대에 들어 반려동물 유기라는 문제점들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길에서 떠도는 개와 고양이를 한 번이라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유기동물이 이처럼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산업화에 따른 반려동물 생산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돈을 벌기위해 생명을 유린하여 사고파는 것이 당연시 된 것이다. 더불어 애견사업이 발전하며 물건을 판매 하듯 쇼윈도를 통해 어미의 젖도 못 땀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를 진열해 놓은 애완동물가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생명을 가볍게 구매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유기견(犬)·묘(猫)들이 증가하는 현상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유기동물 증가를 이해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들은 시청자들에게 방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전달하게 된다. 즉 보여줘야 될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중립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이윤획득과 경영의 안정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연출하여 대중들에게 무작위로 송출되게 된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반려동물과 관련된 방송들이 많아지면서 특정 견(犬)·

6)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과장 김기연, 『2018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현황, 2018년 기준 12만 1,077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였으며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 1,077마리로 2018년 대비 18.0% 증가하였으며 개 75.8%, 고양이 23.2%, 기타 1.0%로 조사되었다. 2019.07.23. 보도자료, p3

묘(猫)종 유행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그에 따라 이후 특정 견(犬)·묘(猫)종이 많이 버려지는 사태 또한 함께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의 작품은 'OUT OF PLACE'라는 주제로 전시 되었다. 이는 지리학자인 크리스 필로(Chris Philo)⁷⁾가 동물이 사회에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이다. 가치에 대한 재해석 및 관점의 변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생명에 대한 혹은 동물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을 통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여 본인의 주관을 통해 유기견(犬)·묘(猫)의 실태를 조형언어로 풀어내어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는 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이다.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육아, 현대인들의 우울증 치료, 시각 장애와 같이 몸이 불편한 이들과 살아가는 안내견 등 동물의 쓰임은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들로 밀접해 있다. 혹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얻으며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반려동물 사업과 단편적 모습만을 전달하는 매스미디어들의 영향으로 반려동물들은 쉽게 사고 팔리며 버려지고 있다.

단순하게 시작된 호기심과 관심은 반려동물을 위험한 도심 혹은 야산 등 어두운 길로 내몰리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농림축산 검역본부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관심이 증가 할수록 더욱 보호받고 책임져야 할 존재들을 외면하고 유린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유기동물들을 거리에서 마주하고 도로 위에서 사체로 목격하기도 한다. 반려동물들은

7) 크리스 필로(Chris Philo,1960): 글래스고 대학 지리학과(geography at Glasgow University) 교수,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의 시드니 서섹스 대학(Sydney Sussex)을 졸업,연구원(1989-1995), 램퍼트 대학 지리학과(Geography at Lampert University) 입학. 글래스고 대학(University of Glasgow)교수 입학, 2002년 학과장 역임.]

저서: 크리스 필로, 크리스 윌버트(Chris Philo, Chris Wilbert)공동편저, 『동물 공간, 짐승 공간 : 동물 관계의 새로운 지형 Animal Spaces, Beastly Places: New Geographies of Human-animal Relations』, Taylor & Francis, 2000

인간에게 유기됨과 동시에 낯선 공간으로 강제 이주되어 살아가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공간 속에서 유기동물들은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의 경계적 의미를 갖고 인간들에 의해 버려졌지만 다시금 인간사회와 강제로 관계를 맺으며 사회와 야생의 경계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길 위에 떠도는 유기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주목하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작품의 표현 방법

1) 색채 표현

색채 심리학에서 검은색이 가지는 의미는 다양하다. 죽음, 고독, 공포, 답답함, 상실, 단절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일본의 사진작가 고다마 사에⁸⁾의 저서 <유기동물에 대한 슬픈 보고서>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는 “이 책에 실린 사진 속 동물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130여 장의 흑백으로 찍은 안락사 직전의 유기동물 사진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음을 앞둔 유기동물들의 모습과 보호소의 처참한 현실 속 어두운 분위기를 흑백사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본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검은색은 개와 고양이의 형태를 통해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는 죽음을 의미한다. 길 위로 내몰린 유기견(犬)·묘(猫)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로드킬(roadkill)⁹⁾로 인해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전시작품 중 흐릿한 한 쪽 눈을 가진 형태로 표현된 고양이 작품 <외눈의 세상> [도판1]에서 표현되었듯이 길 위의 동물을 혐오하는 인간들로부터 학대나 살해를 당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를 들기 위해 장애를 가진 고양이를 제작하였다. 이렇듯 길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생명을 위협받는 생활은 어둡기만 하며 그 끝에는 거리에서의 죽음과 동물 보호소의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끝내 재입양 되지 못해 안락사를 피

8) 고다마 사에(1970, 히로시마 현 출생): 어렸을 때부터 개, 고양이, 햄스터, 닭 등 여러 동물과 함께 자랐다. 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키워 동물보호 활동가가 되었다. 대학 졸업 후 동물병원 잡지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인간과 동물의 공생’을 주제로 취재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 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찍은 사진으로 <마지막 초상화, 생명을 부여받고> 전국 순회전시를 했다. 저서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 2009

9) **로드킬** (Roadkill) 또는 동물 역사(動物 轢死)는 동물이 도로에 나왔다가 자동차 등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말한다. 그 종류는 노루,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까지 다양하다.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과 유기견(犬)·묘(猫)들이 겪는 어두운 세상을 대변하고 끝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둘째는 소외된 삶을 의미한다. 분주하고 활기찬 세상과 달리 유기견(犬)·묘(猫)들은 어둡고 후미진 곳에서 존재하며 인간들 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 속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무관심한 사회 속에 유기견(犬)·묘(猫)들은 어둠 속에서 움츠리며 우리들 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유기동물들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검은색을 사용하였다. 셋째는 검은색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의 파괴이다. 검은색의 고양이는 불운을 상징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검은색 동물에 대해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선호하지 않는데 반해 흰색의 털을 소유한 동물에게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버려진 검은 개와 고양이는 색이 검다는 이유로 재입양 마저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된다. 인간들은 반려동물을 입양 하는 순간에도 차별을 범한다. 본인은 모든 작품의 외관을 검은색으로 설정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검은색의 부정적 의미를 탈피하고 검은색 또한 아름다움을 표현함에 있어서 손상이 없음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백낙선¹⁰⁾ 저서 <마음으로 읽는 색채 심리>에서는 검은색에 대하여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을 때 또는 자신을 단련시키기 원할 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침묵의 색’이다.”라고 설명한다. 검은색은 유기견(犬)·묘(猫)들이 죽음의 위기에 노출되어있으며 어둠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10) 백낙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오타와대학에서 판화와 필름 전공,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일러스트와 판화를 전공했다. 개인전과 수차례 그룹전으로 작품을 발표했으며, 갤러리 제곱(z:gob multimedia design&art)을 창립하여 웹 아티스트로도 활동해 왔다. 2003년 일본 동경 색채학교에서 세계적인 색채심리연구가 스에나가 타미오 박사님으로부터 색채심리 메소드를 전수받아 스에나가 Heart&Color 메소드 연구, 교육함으로써 색채심리를 한국에 소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한국 스에나가 메소드 연구소와 부설 어린이 색채학교(Color Factory)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Art&Therapy 색채심리협회 회장, 일본 Art&Therapy 색채심리협회 한국 대표이며,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FIK에 출강하고 있다.

있고 인간에 의해 강제로 버려진 그들이 경계 밖으로 밀려나며 느꼈을 암울한 현실 속에서의 두려움과 적응력을 반영하는 의미 또한 포함한다.

전시장에서 검은색이 가지는 기능은 유채색이 가지는 밝기와 무게에 비해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며 보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힘이 있다. 무게감이 존재하는 공간에는 가볍게 봐야할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따른다. 이와 같은 의미의 요소를 전시장에서 활용함으로써 화이트큐브 공간을 검은색 개와 고양이 형태들로 채워 정적이고 응집된 긴장의 상태를 연출하여 진중한 시각으로 보게 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 검은색의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작품 개별적으로 검은색을 통해 절망과 죽음의 의미를 비추는 동시에 시선을 분산 시킬 수 있는 유채색의 사용을 피함으로써 본인이 제시하는 내용과 목적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표현하고자 했던 근본적 내용에 근거해 사유하고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2) 눈의 시각적 표현

정신 생리학 정신 현상 및 정신 발달을 생리학적인 근거에서 연구하는 학문에 따르면 인간의 동공크기와 안구운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동공의 직경은 피로감이나 정신활동 뿐만 아니라 자극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 반응하고 지각하는 과정과 성격의 특성을 포함해 의사소통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또한 긍정적인 자극을 접하게 되면 확장되지만 불쾌한 자극을 접하게 되면 수축하기도 한다. 따라서 눈은 어느 정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예민한 감각 기관이다.

인간은 흔히 타인을 상대할 때 눈을 먼저 본다. 인간의 눈은 시각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이란 사실을 넘어 외적과 내적 자극에 대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반응으로 빛을 발산하게 되는 ‘마음의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서로의 눈을 본 것이 아닌 ‘눈빛’을 본 것으로 설명이 된다. 그것도 단순히 상대가 지닌 홍채의 색상이 발산하는 빛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발산되어지는 빛이며 기억의 빛인 셈이다. 인간은 각기 다른 다양한 경험과 그에 따라 저마다 다른 기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 속에 지니는 눈빛도 다양하다. 또한 인간의 눈빛은 스스로의 의지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 신경계가 관여하는 내적인 과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발성과 몸짓 같은 확연한 실체의 언어보다 심리의 내면을 상징하는 ‘눈빛’의 추상적인 모호함이 주는 느낌들이 때로 기능적 언어보다 더 강렬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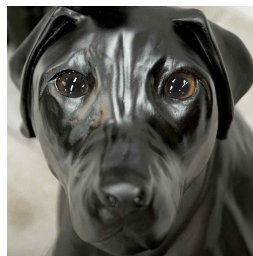
본인은 작품에서 개와 고양이의 눈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형상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의 황포와 유기동물들이 처한 복합적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포함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하려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보는 이의 감정을 자극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시도로 진심의 창인 ‘눈’이 줄 수 있는 의미들에 주목하여 ‘눈빛’ 언어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강렬한 효과를 기대하였다. 본인의 작품에 표현된 눈으로 보여주고자 한 눈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무엇인가를 응시하는 시선’이다. 개와 고양이 작품의 눈이 지닌 시선은 불안정하고 쓸쓸하다. [도판2],[도판3],[도판4]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공간의 검은 색채가 주는 어둡고 쓸쓸한 긴장감을 통해서 소외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딘가를 응시하는 눈빛은 인간사회로 부터의 소외에 대한 원망을 비출 수 있으며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한 우리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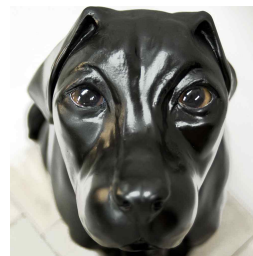
[도판 1]



[도판 2]



[도판 3]



[도판 4]

둘째, ‘순수함을 상징하는 눈빛’이다. 관람객은 조형으로 표현한 버려진 개와 고양이의 눈을 보고 마주하게 된다. 이는 버려진 생명들의 시선과 마주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기동물들의 시점에서 거리로 내몰린 원인과 현실을 직시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인간을 바라보고 구원의 희망을 갈구하는 순수한 모습을 ‘눈빛’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은 인간들이 가지는 편견과 냉엄한 인간주의에 관한 비판의식이 바탕이 된다. 갈등의 근저에는 아직도 ‘우월한’ 인간중심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관계를 바로 잡아 회복해야하며 유기동물들의 삶

과 죽음은 어쩌면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해 있던 이 비극들에 대해 어떻게 다가섰었는지 부끄러움을 느껴야한다. 미술가 윤석남¹¹⁾ 『1,025 : 사람과 사람 없이』 작품을 보면 상기 의미를 잘 내포하고 있다. 작가는 2003년 신문에서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이애신 할머니의 뉴스를 접하고 버려진 개들의 부당한 삶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진행했다. 나무로 만들어진 1,025마리의 개들은 전시 공간에 들어선 관람객을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하게 연출하였다. 관찰의 대상이 개가 아닌 관람객으로 변화하는 특정 공간 속에서 수천 개의 작품들로 일제히 받는 시선은 우리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본인의 “OUT OF PLACE(제 자리에 있지 않은)”의 전시 기획 의도와도 연결된다.

우리는 의사소통의 수단에서 필연적인 ‘눈’을 통해 외면했던 현실과 마주하여 길 위에 떠도는 생명들의 존엄한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11) 미술가 윤석남: 1939 만주 출생, 1982 서울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 개인전 <윤석남>전
 199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 특별전 참가, 1996 제8회 이중섭미술상 수상
 1999 예술의 전당 <'99여성미술제:팔쥐들의 행진>전 참가, 2000 광주비엔날레 <人十間:광주비엔날레 2000> 본전시 참가
 2008 아르코미술관 개인전 <윤석남:1,025:사람과 사람없이>전, 2009 학교재 개인전 <윤석남>전 등
 [네이버 지식백과] 미술가 윤석남 - 여성주의 미술 (미술가, 이선화)

3. 작품분석



【작품 1】 기다림

【작품 1】 기다림

제작연도 : 2019년

작품크기 : 40x55x87,120x60x67(cm)

작품재료 : 폴리에스터, 크리스탈 레진, 프라이머, 우레탄 페인트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체계적으로 드로잉하고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나무와 철로 뼈대를 만든 뒤 점토를 붙여 성형한다.
2. 성형된 점토에 안구가 들어갈 지점을 지정하여 안구와 같은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임의로 박아놓고 두상 형태를 마무리 묘사한다.
3. 점토로 제작된 형태에 쪼갬 부분을 지정하고 석고를 발라 겉틀을 제작한다.
4. 석고 틀 안쪽 눈 지점 부위에 안구 크기와 동일한 스테인리스 구를 접착제로 고정하고 합성수지를 발라 경화시킨 후 겉틀을 깨내어 내형으로부터 분리한다.
5. 겉틀에서 분리된 합성수지 두상과 몸통 내형을 모양과 면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6. 각 형태 사이즈에 맞는 안구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준비하여 실리콘으로 떠낸다.
7. 크리스탈 레진을 실리콘 틀에 부운 뒤 눈 묘사를 한 필름을 중앙에 넣고 함께 경화시킨다.
8. 연마된 합성수지 두상 내형에 제작한 안구를 넣어 고정시킨 후 몸통 원형과 결합하여 형태를 완성한 뒤 최종 연마를 한다.
9. 합성수지 소재의 원형에 도색이 잘 흡착 될 수 있도록 에폭시 프라이머를 사용해 건조 후 우레탄 페인트 도장을 하고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두 마리의 검은 대형견이 차가운 시멘트 위에 앉아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 힘없이 엎드려 있는 개의 몸은 갈비뼈의 형태가 드러나 앙상하다. 두 마리 개의 형태는 해외 토픽이나 국내 매스컴에서 기사화 되는 ‘차가운 길 위에서 아픈 친구를 지키는 개’, ‘죽은 친구를 지키는 도로 위의 개’와 같은 기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다. 애처로워 보이는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반려자가 떠나간 자리일 수 있고 인간 세상에 대한 원망일 수 있다.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원의 빛이 머무는 자리일 수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다. 작품은 검은색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참고하며 만든 실제 두 마리 개의 털은 갈색이다. 이는 그들만의 고유한 색을 띄고 세상에 존재하지만 인간중심의 세상에서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어찌면 이 세상에서 삭제된 존재들이며 차가운 길 위와 인간들의 무관심속에 저 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존재들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보는 이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며 제작하였다.



【작품 2】 그 곳에 서서

【작품 2】 그 곳에 서서

제작연도 : 2019년

작품크기 : 120x60x100 (cm)

작품재료 : 폴리에스터, 에폭시 프라이머, 우레탄 페인트 , 크리스탈 레진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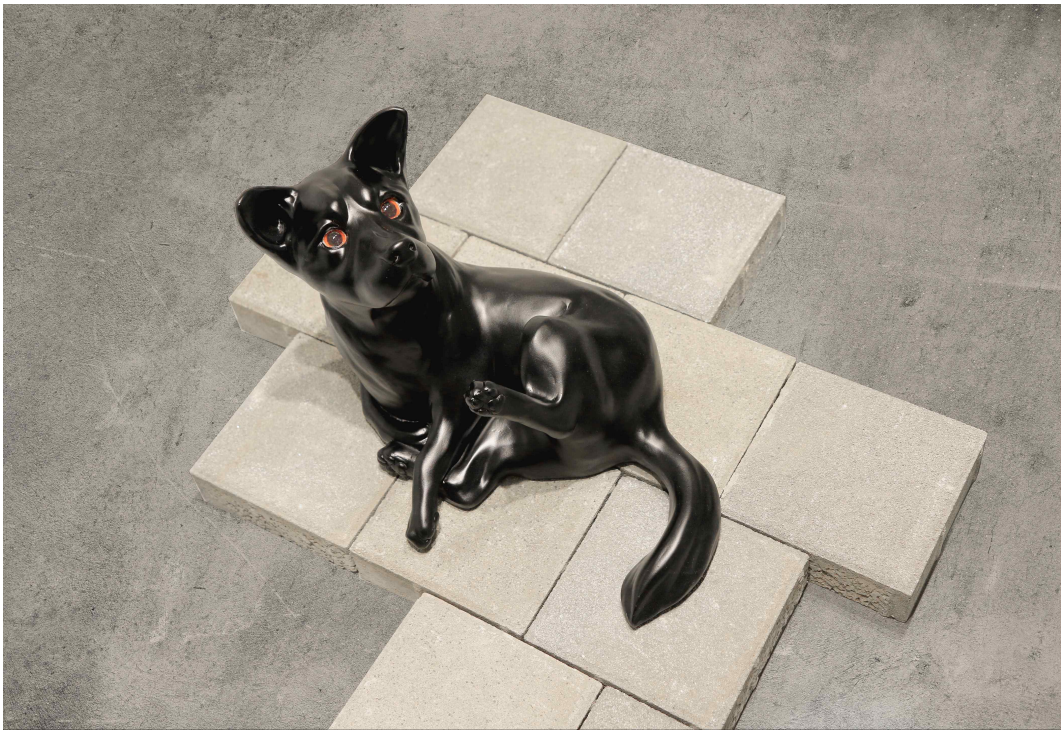
1. 구상한 작품을 체계적으로 드로잉하고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나무와 철로 뼈대를 만든 뒤 점토를 붙여 성형한다.
2. 성형된 점토에 안구가 들어갈 지점을 지정하여 안구와 같은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임의로 박아놓고 두상 형태를 마무리 묘사한다.
3. 점토로 제작된 형태에 쪼갬 부분을 지정하고 석고를 발라 겉틀을 제작한다.
4. 석고 틀 안쪽 눈 지점 부위에 안구 크기와 동일한 스테인리스 구를 접착제로 고정하고 합성수지를 발라 경화시킨 후 겉틀을 깨내어 내형으로부터 분리한다.
5. 겉틀에서 분리된 합성수지 두상과 몸통 내형을 모양과 면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6. 각 형태 사이즈에 맞는 안구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준비하여 실리콘으로 떠낸다.
7. 크리스탈 레진을 실리콘 틀에 부운 뒤 눈 묘사를 한 필름을 중앙에 넣고 함께 경화시킨다.
8. 연마된 합성수지 두상 내형에 제작한 안구를 넣어 고정시킨 후 몸통 원형과 결합하여 형태를 완성한 뒤 최종 연마를 한다.
9. 합성수지 소재의 원형에 도색이 잘 흡착 될 수 있도록 에폭시 프라이머를 사용해 건조 후 우레탄 페인트 도장을 하고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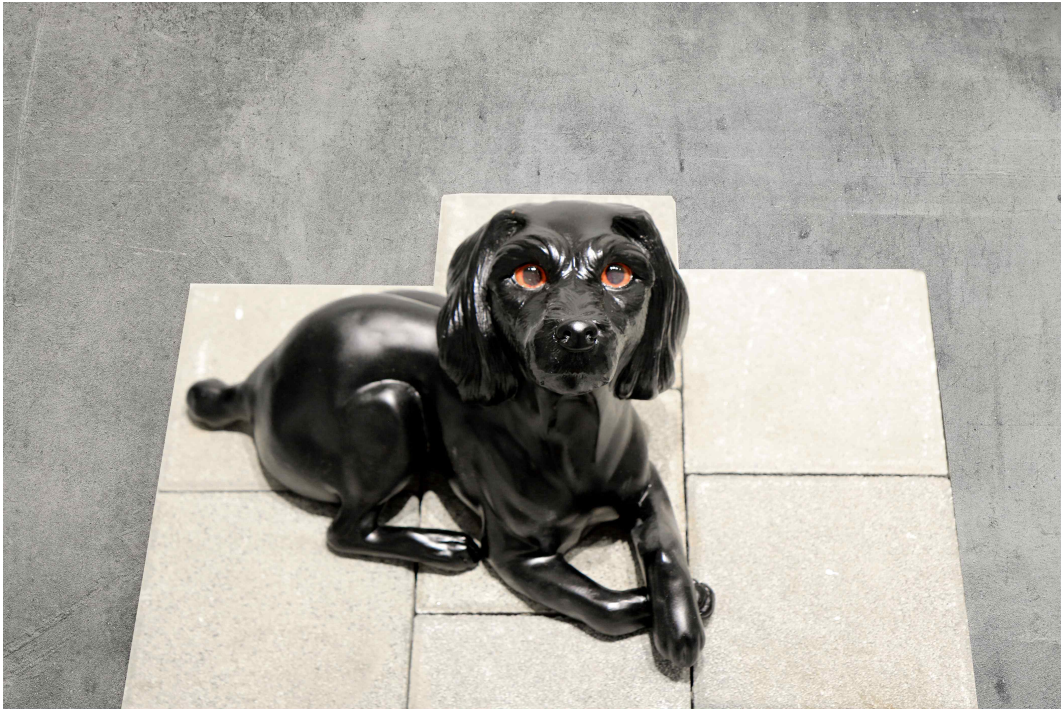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반려동물 관련 방송들이 많아지면서 특정 견종 유행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방송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흐름과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한 때 인기 방송에서 ‘상근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스타견이 된 견종은 ‘그레이트 피레니즈’라는 거대한 대형견 이었다. 사람들은 상근이 같은 대형견들을 유행 따라 입양하기 시작했고 이런 유행은 대형견의 유기현상을 부추기고 야기 시켰다. 개인의 만족과 욕구충족의 도구가 아닌 하나의 존엄한 생명으로 보았다면 무턱대고 입양한 후 유기를 하는 무책임한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한 때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버려지고 현재에도 유기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대형견들의 슬픔을 관객들에게 제시하고 소통하고자 제작하였다.



【작품 3】 마지막 기회_백구



【작품 4】 마지막 기회_또또



【작품 5】 마지막 기회_블리

【작품 3】 마지막 기회_백구

제작연도 : 2019년

작품크기 : 35x23x42(cm)

작품재료 : 폴리에스터, 에폭시 프라이머, 우레탄 페인트 , 크리스탈 레진

【작품 4】 마지막 기회_또또

제작연도 : 2019년

작품크기 : 45x30x32(cm)

작품재료 : 폴리에스터, 에폭시 프라이머, 우레탄 페인트 , 크리스탈 레진

【작품 5】 마지막 기회_블리

제작연도 : 2019년

작품크기 : 14x20x29(cm)

작품재료 : 폴리에스터, 에폭시 프라이머, 우레탄 페인트 , 크리스탈 레진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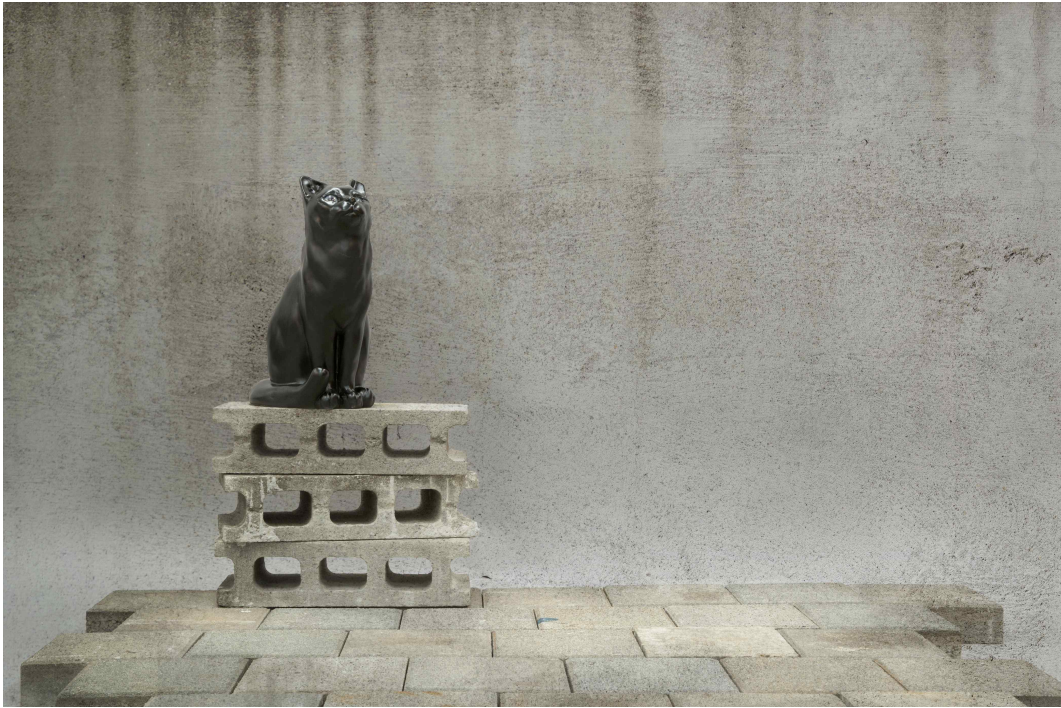
1. 구상한 작품을 체계적으로 드로잉하고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나무와 철로 뼈대를 만든 뒤 점토를 붙여 성형한다.
2. 성형된 점토에 안구가 들어갈 지점을 지정하여 안구와 같은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임의로 박아놓고 두상 형태를 마무리 묘사한다.
3. 점토로 제작된 형태에 쪼갬 부분을 지정하고 석고를 발라 겉틀을 제작한다.
4. 석고 틀 안쪽 눈 지점 부위에 안구 크기와 동일한 스테인리스 구를 접착제로 고정하고 합성수지를 발라 경화시킨 후 겉틀을 깨내어 내형으로부터 분리한다.
5. 겉틀에서 분리된 합성수지 두상과 몸통 내형을 모양과 면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6. 각 형태 사이즈에 맞는 안구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준비하여 실리콘으로 떠낸다.
7. 크리스탈 레진을 실리콘 틀에 부운 뒤 눈 묘사를 한 필름을 중앙에 넣고

함께 경화시킨다.

8. 연마된 합성수지 두상 내형에 제작한 안구를 넣어 고정시킨 후 몸통 원형과 결합하여 형태를 완성한 뒤 최종 연마를 한다.
9. 합성수지 소재의 원형에 도색이 잘 흡착 될 수 있도록 에폭시 프라이머를 사용해 건조 후 우레탄 페인트 도장을 하고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마지막 기회’에 모티브가 된 형상의 이미지들은 실제 유기 된 강아지들이다. ‘백구’는 7개월 전 상처 난 다리를 가지고 산 속 창고에 버려져 있었던 사연을 가지고 있고 ‘또또’는 2년전 한 도로가에서 탈진 한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연이 있다. ‘볼리’는 1년전 반려자에게 버려져 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앞두고 있었다. 현재는 모두 마지막 기회의 끈 이었던 반려자를 만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만 당시의 비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 꺼져가던 생명들의 모습을 화이트 큐브 안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보다 유기견의 실태와 현실에 한층 다가가 관객들과 쉽게 소통하고자 하였다.



【작품 6】 외눈의 세상

【작품 6】 외눈의 세상

제작연도 : 2019년

작품크기 : 20x25x37(cm)

작품재료 : 폴리에스터, 에폭시 프라이머, 우레탄 페인트 , 크리스탈 레진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체계적으로 드로잉하고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나무와 철로 뼈대를 만든 뒤 점토를 붙여 성형한다.
2. 성형된 점토에 안구가 들어갈 지점을 지정하여 안구와 같은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임의로 박아놓고 두상 형태를 마무리 묘사한다.
3. 점토로 제작된 형태에 쪼갬 부분을 지정하고 석고를 발라 겉틀을 제작한다.
4. 석고 틀 안쪽 눈 지점 부위에 안구 크기와 동일한 스테인리스 구를 접착제로 고정하고 합성수지를 발라 경화시킨 후 겉틀을 깨내어 내형으로부터 분리한다.
5. 겉틀에서 분리된 합성수지 두상과 몸통 내형을 모양과 면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6. 각 형태 사이즈에 맞는 안구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준비하여 실리콘으로 떠낸다.
7. 크리스탈 레진을 실리콘 틀에 부운 뒤 눈 묘사를 한 필름을 중앙에 넣고 함께 경화시킨다.
8. 연마된 합성수지 두상 내형에 제작한 안구를 넣어 고정시킨 후 몸통 원형과 결합하여 형태를 완성한 뒤 최종 연마를 한다.
9. 합성수지 소재의 원형에 도색이 잘 흡착 될 수 있도록 에폭시 프라이머를 사용해 건조 후 우레탄 페인트 도장을 하고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인간이 만든 세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에서 집을 잃은 고양이들이 갈 곳은 없다. 길 위를 떠도는 고양이들은 먹이와 은신처 부족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에 노출이 되기 쉽고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집에서 키우던 온순한 성격의 품종 있는 고양이는 사냥 본능도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사람을 피해 도망가지 않는 점에 많은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차가운 시멘트로 이루어진 세상과 인간들의 위협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전쟁터 같은 인간들의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며 돌을 맞거나 화살에 머리가 관통 당하는 사건,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학대들과 시대가 발전 하면서 흙 위의 들어서는 피조물인 콘크리트 건축물에 의한 크고 작은 상처 등등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는 것은 흔한 일이다. 작품에서 고양이의 형태는 온전치 않다. 한쪽 눈을 잃고 왼 쪽 귀는 TNR기술(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성화수술 사업)의 흔적으로 1cm가량 잘려있다. 현 시대를 상징하는 콘크리트와 온전하지 않은 고양이의 형상을 함께 화이트 큐브로 들여놓음으로써 누구나 한번쯤은 목격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을 뜻하지 않게 대면하도록 유도하여 소통하고자 하였다.



【작품 7】 어서 와요!

【작품 7】 어서 와요!

제작연도 : 2019년

작품크기 : 50x13x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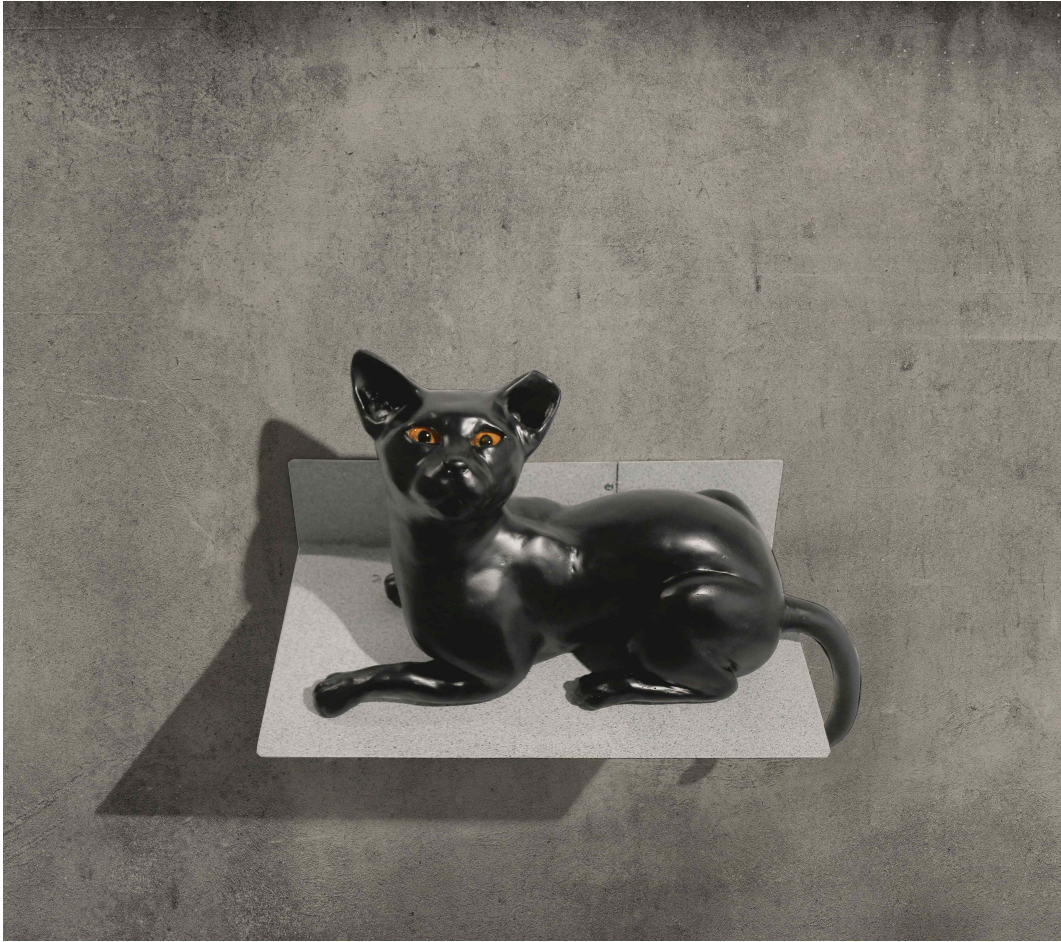
작품재료 : 폴리에스터, 에폭시 프라이머, 우레탄 페인트 , 크리스탈 레진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체계적으로 드로잉하고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나무와 철로 뼈대를 만든 뒤 점토를 붙여 성형한다.
2. 성형된 점토에 안구가 들어갈 지점을 지정하여 안구와 같은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임의로 박아놓고 두상 형태를 마무리 묘사한다.
3. 점토로 제작된 형태에 쪼갬 부분을 지정하고 석고를 발라 겉틀을 제작한다.
4. 석고 틀 안쪽 눈 지점 부위에 안구 크기와 동일한 스테인리스 구를 접착제로 고정하고 합성수지를 발라 경화시킨 후 겉틀을 깨내어 내형으로부터 분리한다.
5. 겉틀에서 분리된 합성수지 두상과 몸통 내형을 모양과 면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6. 각 형태 사이즈에 맞는 안구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준비하여 실리콘으로 떠낸다.
7. 크리스탈 레진을 실리콘 틀에 부운 뒤 눈 묘사를 한 필름을 중앙에 넣고 함께 경화시킨다.
8. 연마된 합성수지 두상 내형에 제작한 안구를 넣어 고정시킨 후 몸통 원형과 결합하여 형태를 완성한 뒤 최종 연마를 한다.
9. 합성수지 소재의 원형에 도색이 잘 흡착 될 수 있도록 에폭시 프라이머를 사용해 건조 후 우레탄 페인트 도장을 하고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길 위에 떠도는 고양이들은 그저 골목의 어둠에 일부이고 세상의 그림자로 치부된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어딘가 넘어 응시하고 있는 고양이의 시선 끝에 두려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들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희망이 빛나고 있을 수 있다. 각자 지니고 있는 고유의 색을 생략하고 검은색으로 덮은 것은 그들의 세상이고 현실에 대한 표현이다. 관객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작품을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을 맞추며 직면하도록 연출하였고 ‘어서 와요’라는 제목으로 관객을 바라본다. 인사말인 동시에 언젠가 다가올 밝은 날에 대한 염원이기도 하다.



【작품 8】 경계(境界)

【작품 8】 경계(境界)

제작연도 : 2019년

작품크기 : 50x18x40(cm)

작품재료 : 폴리에스터, 에폭시 프라이머, 우레탄 페인트 , 크리스탈 레진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체계적으로 드로잉하고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나무와 철로 뼈대를 만든 뒤 점토를 붙여 성형한다.
2. 성형된 점토에 안구가 들어갈 지점을 지정하여 안구와 같은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임의로 박아놓고 두상 형태를 마무리 묘사한다.
3. 점토로 제작된 형태에 쪼갬 부분을 지정하고 석고를 발라 겉틀을 제작한다.
4. 석고 틀 안쪽 눈 지점 부위에 안구 크기와 동일한 스테인리스 구를 접착제로 고정하고 합성수지를 발라 경화시킨 후 겉틀을 깨내어 내형으로부터 분리한다.
5. 겉틀에서 분리된 합성수지 두상과 몸통 내형을 모양과 면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6. 각 형태 사이즈에 맞는 안구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준비하여 실리콘으로 떠낸다.
7. 크리스탈 레진을 실리콘 틀에 부운 뒤 눈 묘사를 한 필름을 중앙에 넣고 함께 경화시킨다.
8. 연마된 합성수지 두상 내형에 제작한 안구를 넣어 고정시킨 후 몸통 원형과 결합하여 형태를 완성한 뒤 최종 연마를 한다.
9. 합성수지 소재의 원형에 도색이 잘 흡착 될 수 있도록 에폭시 프라이머를 사용해 건조 후 우레탄 페인트 도장을 하고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검은색의 노란 눈을 가진 고양이가 낮은 포복으로 무엇인가 경계하는 듯 하는 형태이다. 경계하는 고양이의 시선은 관람객이 움직이는 대로 그 곳에 머문다. 인간의 세상과 어둠의 경계(境界)에서 살기 위한 경계(警戒)를 표현한 것이다. 쇠붙이를 이어 만든 좌대위에 배치함으로써 인간을 피해 흙이 아닌 현대 구조물 위에서 불안하게 존재하는 길고양이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작품 9】 나 좀 데려가라

【작품 9】 나 좀 데려가라

제작연도 : 2019년

작품크기 : 55x30x14(cm)

작품재료 : 폴리에스터, 에폭시 프라이머, 우레탄 페인트 , 크리스탈 레진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체계적으로 드로잉하고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나무와 철로 뼈대를 만든 뒤 점토를 붙여 성형한다.
2. 성형된 점토에 안구가 들어갈 지점을 지정하여 안구와 같은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임의로 박아놓고 두상 형태를 마무리 묘사한다.
3. 점토로 제작된 형태에 쪼갬 부분을 지정하고 석고를 발라 겉틀을 제작한다.
4. 석고 틀 안쪽 눈 지점 부위에 안구 크기와 동일한 스테인리스 구를 접착제로 고정하고 합성수지를 발라 경화시킨 후 겉틀을 깨내어 내형으로부터 분리한다.
5. 겉틀에서 분리된 합성수지 두상과 몸통 내형을 모양과 면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6. 각 형태 사이즈에 맞는 안구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준비하여 실리콘으로 떠낸다.
7. 크리스탈 레진을 실리콘 틀에 부운 뒤 눈 묘사를 한 필름을 중앙에 넣고 함께 경화시킨다.
8. 연마된 합성수지 두상 내형에 제작한 안구를 넣어 고정시킨 후 몸통 원형과 결합하여 형태를 완성한 뒤 최종 연마를 한다.
9. 합성수지 소재의 원형에 도색이 잘 흡착 될 수 있도록 에폭시 프라이머를 사용해 건조 후 우레탄 페인트 도장을 하고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집에서 길들여진 고양이는 유기되거나 집을 잃었을 때 길에서도 여전히 인간들과 친화력이 좋다. 먼저 다가와 몸을 비비기도 하고 길에 드러누운 채 배를 보이며 교태를 부리기도 한다. 마치 ‘나를 데려가라’ 말하는 것처럼 그 모습은 뻔뻔하기도 하다. 이런 고양이들과 길에서 조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익살스러운 모습을 표현하였다. 오드아이와 고양이의 형태를 보았을 때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가 아닌 품종 고양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고 그런 고양이가 보도블록 위에 존재하는 것은 유기된 고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배를 보이며 누워 있는 검은 고양이는 인간의 방치 속에 드리우는 무관심의 그림자이기도하다.



【작품10】 저 아래의 세상은

【작품10】 저 아래의 세상은

제작연도 : 2019년

작품크기 : 50x25x32(cm)

작품재료 : 폴리에스터, 에폭시 프라이머, 우레탄 페인트 , 크리스탈 레진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체계적으로 드로잉하고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나무와 철로 뼈대를 만든 뒤 점토를 붙여 성형한다.
2. 성형된 점토에 안구가 들어갈 지점을 지정하여 안구와 같은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임의로 박아놓고 두상 형태를 마무리 묘사한다.
3. 점토로 제작된 형태에 쪼갬 부분을 지정하고 석고를 발라 겉틀을 제작한다.
4. 석고 틀 안쪽 눈 지점 부위에 안구 크기와 동일한 스테인리스 구를 접착제로 고정하고 합성수지를 발라 경화시킨 후 겉틀을 깨내어 내형으로부터 분리한다.
5. 겉틀에서 분리된 합성수지 두상과 몸통 내형을 모양과 면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6. 각 형태 사이즈에 맞는 안구 크기의 스테인리스 구를 준비하여 실리콘으로 떠낸다.
7. 크리스탈 레진을 실리콘 틀에 부운 뒤 눈 묘사를 한 필름을 중앙에 넣고 함께 경화시킨다.
8. 연마된 합성수지 두상 내형에 제작한 안구를 넣어 고정시킨 후 몸통 원형과 결합하여 형태를 완성한 뒤 최종 연마를 한다.
9. 합성수지 소재의 원형에 도색이 잘 흡착 될 수 있도록 에폭시 프라이머를 사용해 건조 후 우레탄 페인트 도장을 하고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시대가 발전하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차들이 달리는 세상 속에 집 없는 고양이들에게 그나마 안전한 곳은 건물 사이 담장이나 높은 지붕 위, 건물의 외곽에 구조물들이다. 나름의 터전에서 복잡한 인간세상을 내려다보는 고양이 모습을 전시장으로 가지고와 쇠판을 붙여 만든 인공구조물을 높이 설치하고 배치하여 마치 관객들을 주시하며 관찰 하는 형상을 연출 하였다. 이러한 연출은 고양이가 사람을 관람 하는 것 인지 사람이 고양이를 관람하는 것인지 관람자 입장이 뒤 바뀌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정하여 인간의 황포에 일말의 부끄러움과 타당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하였다.



【작품11】 바라보다 I



【작품12】 바라보다Ⅱ

【작품11, 12】 바라보다 I, II

제작연도 : 2019년

작품크기 : 162.2x8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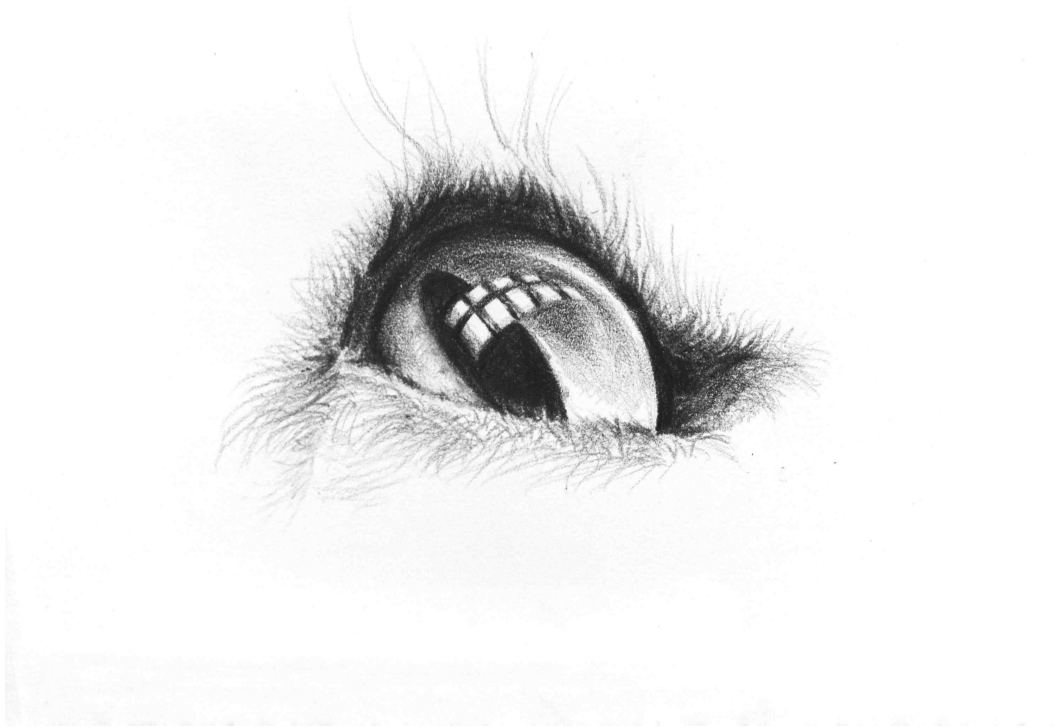
작품재료 : 종이 캔버스, 수채물감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드로잉하고 캔버스의 전체 비율을 고려하여 스케치 후 넓은 붓으로 배경을 채색한다.
2. 눈 형태와 배경의 정확한 경계를 잡고 양감을 살리며 묘사한다.
3. 눈의 발색을 고려하여 채색하고 세세한 무늬를 살려 세밀 묘사를 한 뒤 얇은 선으로 정리하며 마무리 한다.

작품설명

눈은 진실 된 마음으로 통하는 문이다. 개, 고양이의 눈을 큰 캔버스에 극대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작품을 마주보는 이로 하여금 동물의 진실 됨을 전하고자 하였다. 어둠 속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눈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고 눈 안에 비치는 세로선은 유기된 동물들이 보호소 케이지에 갇혀있는 철창을 의미하기도 하며 버려진 동물에게 관대하지 않은 현실 속 보이지 않는 감옥을 의미한다. 또한 하얀 빛 만이 쏟아지는 창문의 형상이기도 하다. 이는 어딘가 존재할지 모르는 유토피아와 희망의 빛을 상징하며 무한공정의 의미와 함께 어두운 이면의 현실을 담았다.



【작품13】 세상의 한 편에서

【작품13】 세상의 한 편에서

제작연도 : 2019년

작품크기 : 20x20(cm)

작품재료 : 종이, 4B연필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종이 전체 비율을 고려하여 눈 형태를 스케치하고 양감을 살려 묘사한다.
2. 눈의 세한 무늬를 살려 세밀 묘사를 한 뒤 얇은 선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눈은 진실 된 마음으로 통하는 문이다. 고양이의 눈을 세밀 묘사 하여 표현함으로써 작품을 마주 보는 이로 하여금 동물의 진실 됨을 전하고자 하였다.

흑백의 그림 속에서 뚜렷하게 비치는 세로선은 유기된 동물들이 보호소 케이지에 갇혀있는 철창을 의미하기도 하며 버려진 동물에게 관대하지 않은 현실 속 보이지 않는 감옥을 의미한다. 또한 하얀 빛 만이 쏟아지는 창문의 형상이기도 하다. 이는 어딘가 존재할지 모르는 유토피아와 희망의 빛을 상징하며 무한긍정의 의미와 함께 어두운 이면의 현실을 담았다.

Ⅲ. 결 론

반려동물 유기는 과거에 없던 사회적 문제이다. 과거에 반려동물은 가족으로서 역할을 이행하며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로 활용되어 오며 공존해왔다.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 사회 속에서 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 경시 풍조와 대량 생산을 통해 많은 자본을 축적하며 등장한 물질만능주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인간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려 동물 생산 공장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또한 성행하게 되었으며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인간 사회의 의식 수준 또한 높아져야 했으나 반대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문제점을 낳았다 또한 매스미디어들의 일방적인 보도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들의 단편적인 모습만 편집 보도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유욕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반려동물들이 방송에서 보여 지는 아름다운 모습과 자신에게 유용한 행동만을 할 것으로 이해하고 반려동물 생산 공장에서 본인의 취향대로 골라 사온 반려동물 구매자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이해하기에 그 무게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유기동물의 개체 수 또한 증가하였다. 반려동물의 위치에 존재할 때는 인간의 주거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다 인간에 의해 소외 받으며 인간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거리로 버려지고 낯선 환경으로 이주 되어 유기동물이 된다. 유기동물들은 인간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어두운 곳을 배회하며 힘들게 살아가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부득이한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유기 동물들은 인간들이 많이 활동하는 도심 중심부 같은 밝은 곳을 피해 인간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아 야산이나 들판으로 떠나기도 하고 건물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주로 다니며 후미진 구석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 작품에서 개와 고양이 형체 전부를 검은색으로 표현 한 것은 거리로 버려진 유기동물의 암울한 현실과 예견된 죽음을 암시하기 위한 장치로써 활용하였다. 유기동물의 몸체를 검은색으로 표현 한 것에 대비되도록 눈에 대한 표현은 색채를 이용하여 사실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검은색 무광의 어두운 몸체와 반대되어 강조된 장치로써 활용했다. 눈을 맑고 빛나는 소재로 제작하여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느낌과 인간에 의해서 버려졌지만 인간을 경계할 뿐 적대적이지 않으며 아직 인간을 따스한 시선으로 봐주는 유기견(犬)·묘(猫)들의 모습을 담았다. 인간이 버린 반려동물에 대하여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느끼고 전시장에서 작품들과 마주하는 행위를 통해 문제를 직면하고 유기 동물들이 처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조형에 집중 하였다.

본인 작품 전시는 'OUT OF PLACE'라는 주제로 진행 하였다. 'OUT OF PLACE'를 의역하면 '제 자리에 있지 않은'이란 의미를 지닌다. 즉 인간의 사랑을 받으며 곁에 있어야하는 반려동물이 인간에 의해서 버려지며 유기동물로 전락해 원래 있어야할 자리가 아닌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미를 통해 관람객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거리를 배회하며 밖에 있어야 할 유기동물들의 사실적인 조형을 전시장 내부에 배치하여 유기 동물들이 느끼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으며 환경적으로 유기동물들이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의 경계에 있는 것처럼 전시장 내부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거리와 전시장의 경계에 위치하여 관람하도록 연출 하였다.

유기동물들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소외되고 외면 받는 현

실 속에서 유기동물들은 살아가고자 보다 안전한 터전을 찾아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그들을 위해 나 또한 조형작업의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직면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며 유기동물들이 처한 현실을 조형언어로 표현하여 반려동물 반려자들의 의식수준 고취와 유기동물들을 대하는 사회인식 및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논문에 담았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마고 드멜로,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공존, 2018
- 고다마 사에, 박소영 옮김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 책공장 더불어, 2009
-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미진사, 2010

《 참고논문 》

- 정은혜, 「인간의 ‘생명 경시 현상’에 대한 풍자적 표현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8
- 조경훈, 「우화를 통한 인간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 인터넷 사이트 》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 기타 》

- 국민일보 2015.01.23_ "등산로서 유기견 공격 받던 50대 여성 가까스로 구조돼" 최영경 기자
- MBC충북 NEWS 2018.5.30_ "유기견에 다친 초등생, 국가 배상 신청" 제희원 기자
- 서울경제 2019.03.31_ "'길고양이 밥 NO' 이웃 때렸다 징역" 강신우 기자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Abandoned Dog And Cat

– ON THE BASIS OF MY WORK –

Ha, yi yan

Dept. of Sculpture

Graduated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 abandoned in the present age of steadily increasing raising companion animals populations is also increasing. Abandoned animals are not guaranteed their right to life even if they are rescued by rescuers. Abandoned animals shelter is also limited in terms of site and financial support, and it is difficult to take responsibility for all of its lives. They cannot accommodate all the abandoned animals that overflow every day.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on animals and humans in the reality that abandoned animals are neglected on the streets, captured through animal shelters, and euthanize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companion animals from the macroscopic perspective of human

centered thinking. Looking at the attitudes that humans have made to companion animals, I would like to describe the effects of societies on abandoned dogs and cats.

I use the genre of art and sculpture to add a direct but indirect element to the audience, so that the audience can see the work and show a cold and static direction so that they can feel very little affection and compassion. Through the direct and realistic appearance of abandoned dogs and cat' s shape,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face and be aware of the reality of abandoned animals and the reality that has been neglected, and to give a chance to think about the alienated life that has been neglected on the road for a while. It is an attempt to do so.

This thesis describes social backgrounds and expression methods, focusing on the works published in the master's degree claim in 2019, and consists of three chapters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tion,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direction of the research.

In Chapter 2,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works through dog and cat images to examine the pet culture and historical background viewed through social phenomena and to show the realities of social issues of abandoned dogs and cats. In addition, he described the expression method focusing on the color expression of the dog and cat figures and the realistic eye description, and based on this, I analyzed my work individually.

In Chapter 3,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in this paper and the

author's works It presented the development task and direction to go about how to express.